

광남시론

위인백

(사) 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로 손꼽히는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 했다. 문명의 탄생-성장-쇠퇴-붕괴 과정을 거쳐 순환한다는 순환설을 주장하면서 도전은 문명이 직면하는 모든 형태의 어려움 또는 위기를 말하며, 이 도전은 문명을 쇠퇴시킨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문명을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는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의 역작 ‘역사의 연구’는 단순한 역사 서술을 넘어, 인류 문명의 복잡한 흐름 속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법칙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삶과 사회는 물론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도 깊은 교훈을 주고 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을 되돌아보으면 한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외부적 도전으로 가뭄·홍수·지진과 같은 극심한 기후 변화나 자연재해와 이민족의 침략, 제국의 팽창과 같은 군사적 위협과 내부적으로 계층 간의 심화된 격차, 인종적 또는 종교적 갈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의 동력을 잃게 한다.

대한민국은 기아에 허덕이며 군부독재에 시달렸으나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함으로써 세계인의 이목을 받았지만, 지난해 말 윤석열의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를 아직도 척결하지 못한 채, 곳곳이 분열된 정정으로 내전 수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기고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최근 ‘케이팝 댄스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에 전 세계가 열광한다고 한다.

작화도의 호랑이가 귀여운 캐릭터 상품으로 재탄생하고, 저승사자 캐릭터의 것이 인기란다. 대한민국 한류 문화가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세계로 문화를 전파하게 된 대한민국의 현실이 놀랍기도 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어르신들의 수고를 되돌아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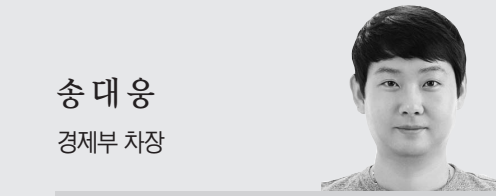
청춘을 바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전남도 발전을 이끌어낸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된다.

마침, 10월은 경로의 달이며, 10월 2일은 법정 기념일인 ‘노인의 날’이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장수 어르신께 왕이 청려장을 하사하고, 조선시대에는 50세에 가장(家長), 60세에 향장(鄉長), 70세에 국장(國長), 80세에 조장(朝長)을 드렸다.

이러한 풍습은 노인의 삶을 존중하고 그 지혜를 후세와 나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취재수첩

프랜차이즈 성장의 명과 암



송대웅
경제부 차장

프랜차이즈 산업의 외형은 커졌지만, 정작 점주는 웃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가맹본부의 매출은 10% 넘게 늘었지만, 가맹점 평균 매출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성장’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불균형’이 심화된 구조다.

리터스인덱스 분석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커피, 치킨, 피자, 편의점 등 7개 업종 가맹본부 매

도전과 응전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망국적인 친위쿠데타는 국민의 축적된 민주 역량으로 막아냈으나 아직도 그 잔당은 잘못을 인정하거는커녕 윤아게인을 외치며 성조기를 앞세운 종교단체 등과 연합하여 거리를 휘젓고, 생동맞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민심을 호도함으로써 국론 분열은 물론 국민의 피로와 국력만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상황에서 우리의 우방으로 자처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관련해 세계 경제를 흔들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4163억달러)의 80%, 올해 1년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3500억달러(약488조원)를 3년 이내 미국이 지정한 사업에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도록 더무니없는 조건을 압박함으로써 우리의 경제를 풍전동자로 내몰며 이달 말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 체류 일정도 밝히지 않은 채 끝까지 관세 협상에 악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선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197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이 외환부족·디폴트, 급격한 환율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및 불안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공동화라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 경제적 침략이다.

또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도 아베와 정치 인생을 함께한 강경보수의 다카이치 자민당 신임 총재가 수상으로 등장하게 됨으로써 독도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관계까지 심히 우려된 한편, 북한마저 핵무장을 대내외에 기정사실화 하면서 드론전의 강국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밀월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한 가운데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저버린 채 남과 북을 별개의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우선 대미 관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최근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힌 정부 입장에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미국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미국의 무역 시나리오에 따른 충격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 남강도 같은 미국의 일방적 압박을 막아내기 위해선 정치권부터 정쟁을 멈추고 관세협정만이라도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단체와 국민은 광우병 파동 때처럼 아니 월드컵과 촛불·빛의 혁명처럼 일어나야만 한다.

우리는 국가 경제의 흥망성쇠가 달린 미국과의 관세협정을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다. 전 국민이 한목소리로 미국에 맞서고 시민단체와 국회, 정부가 똬뚝 똬뚝 맞서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여야를 비롯한 진보와 보수가 극한의 대립을 하더라도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경제전쟁을 눈앞에 두고 바라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의 위기를 IMF와 광우병 파동처럼 대미 관세 협박을 극복해 내는 저력을 발휘해야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것이다.

국가가 어려울 때 모두 하나로 뭉쳐 난국을 극복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건국이념을 같이 보전하면서 K-팝, K-민주주의의 강소대국으로 세계민방에 우뚝 서야 하지 않겠는가!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이 전남 발전으로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7% 이상) 진입 후 17년 만에 고령사회(14% 이상), 그리고 7년 만에 초고령사회(20% 이상)에 도달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전남은 2014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지역으로,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키는 정책은 곧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이에 전남도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매년 노인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38억원 증액한 1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기초연금 확대, 노인일자리 6만 7000개 제공, 반려로봇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 무료 급식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강화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으며 이웃과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2026년에 전남형 의료·요양·복지 통합 돌봄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어르신들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지켜드리고, 체감할 수 있는 ‘행복시책’으로 다가가려는 전남도의 정성이다.

한편으로는 노인들의 경제적 상승과 건강관리를 통해 은퇴 이후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신중년 세대’, 일명 GG세대(Grand Generation)가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소비와 문화, 사회활동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초고령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체 나이보다 10년 이상 젊은 ‘감성나이’로 살아가는 신중년은 더이상 단순한 보호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지혜의 동반자다.

전남 곳곳에서는 이미 ‘선배시민’으로서 어르신들의 활약이 빛나고 있다.

전남도 자원봉사센터의 ‘은퇴재능 남도전구들’을 비롯해 경로식당에서 따뜻한 밥상을 마련하는 여수의 ‘맛차림 봉사단’과 요양원에서 한국무용 공연을 펼치는 ‘시니어라라 봉사단’,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며 외로움을 덜어주는 목포의 ‘안부전화 봉사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전남의 어르신들은 더 이상 수혜자가 아닌, 지역을 지켜내는 든든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의 공식 브랜드는 ‘OK! 지금은 전남시대’다.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신중년의 활력이 모일 때 이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다. 어르신들이 OK 하실 때까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며, 더 나아가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는 길에 어르신들과 늘 함께할 것이다.

최근 세계적인 AI 선도기업 오픈AI와 국내 굴지의 대기업 SK가 전남도에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긴 시간 동안 전남발전의 주춧돌을 놓아주신 선배시민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세계적인 AI 수도’라는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선배시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나침반 삼아 더 큰 희망과 기회의 전남시대로 나아가길 것으로 기대된다.

인건비 등 상승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커피·음료 업종만은 예외였다. 본사 매출이 33% 늘고, 점포 매출도 14% 증가했다. 효율적인 운영 포맷과 메뉴 단가 조정, 테이크아웃 중심 구조가 수익성 방어에 성공한 덕분이다.

업종별로 보면 ‘규모의 경제’는 본사에만 작동하고 있다.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편의점의 경우 지난해 5만 5000곳을 넘어섰지만, 본사 실적만 성장하고 점주들의 실질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이 같은 구조는 단순한 시장 논리의 결과가 아니다. 가맹본부가 출점 확대를 통해 성장세를 과시하고, 광고비와 물류비를 점주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수익 배분’에 있다.

본사와 점포가 함께 성장해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 커피 업종처럼 포맷 혁신과 비용 구조 개선이 가능한 분야는 해법을 찾을 수 있지만, 이미 시장이 포화된 피자·외식 업종은 규제와 자율조정이 동시에 필요하다.

사설

E7-3도입, 광주 車부품업계 인력난 해소

(외국인 기능인력 취업비자)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만성적인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한다.

광주시가 급형·성형·용접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기능인력 취업비자(E7-3)’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오는 2027년 9월까지 2년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광주·경북·충북·충남 등 4곳을 E7-3비자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한 데 따른 것으로 광주에는 올해 투입 예정인 100명의 외국인 중 40명을 배정했다. 2차년도 인원 규모는 1차년도 성과에 따라 조정키로 했다.

광주에 배정된 40명은 급형 설계·가공, 사출·프레스 성형, 구조·차체 용접 등 라인 병목이 잦은 공정에 집중 배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시범사업 도입에 따라 광주지역 부품사의 납기 대응력과 양산 품질을 끌어 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채용 공백으로 미뤄졌던 자동화·스마트공장 고도화 투자를 앞당기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7-3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데 국내 산업 현장중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에 외국인 기능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비자로 5년 이상 일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기존에는 주로 조선, 항공, 동물사육, 양식 등 일부 산업에만 허용했다가 최근 자동차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자동차 부품기업 대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광주시는 지난 9월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16개사에서 122명의 인력신청을 접수했다.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다음달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기술·역량을 검증하고 12월 중 최종 선발한 40명을 지역 수요 기업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광주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자동차 부품기업 확인서 발급과 불법체류 방지, 산업 안전, 한국어·생활 적응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자동차부품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제도적 전환점인 E7-3 비자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기대되는 이유

광양시 최초의 관광단지인 ‘구봉산 관광단지’가 마침내 내달 첫 삽을 뜬다. 전남도가 최근 이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신규 관광단지로 승인한 것이다.

LF리조트가 시행을 맡은 이 사업은 광양 구봉산 일원 207만㎡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3700억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심 속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시설로 220실 규모의 콘도 등 숙박시설과 27홀 골프장을 비롯해 롤링 빌라인·무동력 모노레일 등 엑스트림 레포츠 시설, 경관 조명 산책길 등 구봉산 숲을 활용한 다채로운 휴양문화 콘텐츠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광양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

이 사업은 처음 2017년 광양시 광양읍에 문을 연 ‘LF스퀘어 광양점’의 지역협력사업의 하나로 시작됐다.

이 때 광양시가 지역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골프장과 숙박시설 건립을 제안했고, 이에 LF가 관광휴양시설 등 공공 편의시설을 추가하면서 규모가 관광단지로까지 커졌다.

광양시는 또 2019년 LF리조트가 관광단지 개발 제안을 제출하자 곧바로 전담팀을 구성해 부지 확보와 인허가 지원에 나섰고 다음해에는 전남도와의 3자 투자협약 체결을 이끌었다.

2022년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는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되자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각종 현안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갔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경관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함께 대응해 나가며 불과 2년 4개월 만에 인허가를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봉산 관광단지는 지역 주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남해안권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철강·항만의 산업도시인 광양시를 관광과 문화가 함께 숨 쉬는 매력적인 도시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광양이 남해안 관광벨트의 새로운 거점으로 순천·여수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동부권 관광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이 기대되는 이유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부사장·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는 설 실 370-7060
	경 제 부	370-702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사회교육부	370-7030	임 원 실 370-7000
	지역사회부	370-7040	총 무 국 370-7093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열간)	문화체육부	370-7234	사 업 국 370-7090
	편 집 부	370-7082	광 고 국 370-7070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